

2012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배 은 주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 책임

■ 배은주 /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3) 연구의 한계	4
II. 교육격차 개념과 관련 요인	5
1. 교육격차의 개념	5
1) 유사 개념과 교육격차	5
2) 교육과정별 교육격차 개념	5
2. 교육격차 관련 요인	6
1) 개인적 요인	6
2) 사회적 요인	6
3) 이동요인	8
3. 교육격차 분석 모형	9
1) 퍼셀(Persell, 1977)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9
2) 한정신(1980)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9
3) 김영철(2003)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10
4) 고희일 외(2005)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10
4. 선행연구를 통해 본 교육격차 실태	11
1) 김영철(2003) :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12
2) 강영혜 외(2004) :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12
3) 고희일 외(2005) :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12
4) 성열관 외(2005) :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	13
5) 류방란 외(2006) :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13
6) 하봉운(2004) :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13
7) 박종필 외(2008)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14
8) 서지영(2010) :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연구	14
III.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중심	15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5
2. 인천시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19
1) 초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19
2) 중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21

3) 고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24
3.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33
IV.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및 발생 원인	35
1. 지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	35
1) 교육적 문제	35
2) 사회적 문제	38
2. 지역 간 교육격차의 발생 원인	39
1) 지역의 교육여건 차이	39
2) 학교의 여건 차이	43
3) 학생 이동 차이	46
V.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50
1.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방향	50
1) 지역 간 부의 격차 해소	50
2) 교육여건의 균등화	50
3) 보상적 교육정책 추진	50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50
1) 지역여건 균형정책	51
2) 교육복지정책	52
3) 교육취약지역 지원 정책	53
4) 교육정책	55
5) 행·재정 지원정책	55
참고 문헌	57

<표 차례>

<표 I-1> 학업성취도 조사대상 학교수 현황	3
<표 II-1> 부르코버의 학교풍토	7
<표 III-1> 연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내용	17
<표 III-2> 2010 구별 초등학교 학력비교	20
<표 III-3> 2011 구별 초등학교 학력비교	20
<표 III-4> 2010 구별 중학교 학력비교	22
<표 III-5> 2011 구별 중학교 학력비교	23
<표 III-6> 2010 구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비교	25
<표 III-7> 2011 구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비교	26
<표 III-8> 2010 구별 특성화 고등학교 학력비교	27
<표 III-9> 2011 구별 특성화 고등학교 학력비교	28
<표 III-10> 2010 구별 특수목적(성적우선) 고등학교 학력비교	29
<표 III-11> 2011 구별 특수목적(성적) 고등학교 학력비교	30
<표 III-12> 2010 구별 특수목적(특기) 고등학교 학력비교	31
<표 III-13> 2011 구별 특수목적(특기) 고등학교 학력비교	31
<표 III-14> 2010 구별 자율형공립 고등학교 학력비교	32
<표 III-15> 2011 구별 자율형공립 고등학교 학력비교	32
<표 IV-1> 2011년 일반계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36
<표 IV-2> 2011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37
<표 IV-3> 2011년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38
<표 IV-4> 인천시 아파트 구별 평당 매매가격 추이(2000년-2010년)	39
<표 IV-5> 2010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가구월평균소득	40
<표 IV-6> 2010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직업현황	41
<표 IV-7> 2011년 구별 교육경비 현황	42
<표 IV-8>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사교육환경	43
<표 IV-9> 2011년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44
<표 IV-10> 2011년도 인천광역시 중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44
<표 IV-1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45
<표 IV-12>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45
<표 IV-13> 2011년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46
<표 IV-14> 2011년도 인천광역시 중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47
<표 IV-15>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47
<표 IV-16>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48
<표 IV-17>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48
<표 V-1>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시기별 분류	51

<그림 차례>

[그림 II-1] 피셀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9
[그림 II-2] 한정신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10
[그림 II-3] 김영철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10
[그림 II-4] 고흥일 외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는 가장 평등의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에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그만큼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여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에 교육시설과 여건이나 교육비 등 교육의 양적 측면,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의 질적 측면 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 특히, 1990년대 말 등장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양극화의 재생산 기제가 되고 있는 교육격차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는 학교의 질적 차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른 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의 계층화 현상은 그 지역 학생들이 받은 교육적 경험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음(김양분 외, 2009).
- 즉, 거주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나 교육과정, 교육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학업성취 격차 문제는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됨.
- 교육격차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함.
- 교육격차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는 시와 군이 함께 공존하는 광역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구분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같은 광역시 내 지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결과 측면에서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천시가 학력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격차 관련 1차 연구로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한 교육결과의 측면에 주목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 측면의 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2010년과 2011년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천시 군·구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교, 자율형고교의 비교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그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로는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물을 검토함.
- 통계자료 분석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인천광역시 군·구별 초·중·고의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함.
- 전체 학교들 중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고, 새롭게 신설된 학교들이 있어 2010년과 2011년의 군·구별 총학교수와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 학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도별 학력수준의 비교는 경향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총학교수는 2011년 인천교육통계의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학교수에는 분교의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된 2010년과 2011년의 학업성취도 조사대상 학교수 현황을 제시한 것임.

<표 1-1> 학업성취도 조사대상 학교수 현황

(단위: 개교)

학교급	학교수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계
초등학교	총학교수	14	8	22	21	36	42	27	37	23	13	243 ¹⁾
	2010년 조사학교수	11 ²⁾	8	22	20	33 ³⁾	42	26 ⁴⁾	35 ⁵⁾	18 ⁶⁾	7 ⁷⁾	
	2011년 조사학교수	12 ⁸⁾	8	22	21 ⁹⁾	36	42	27	37	17 ¹⁰⁾	7 ¹¹⁾	
중학교	총학교수	8	4	12	15	22	21	15 ¹²⁾	19	11 ¹³⁾	5	132 ¹⁴⁾
	2010년 조사학교수	8	4	12	14	20 ¹⁵⁾	21	14	17 ¹⁶⁾	9	5	
	2011년 조사학교수	8	4	12	15 ¹⁷⁾	21 ¹⁸⁾	21	14	19	9	5	
일반계고	총학교수	5	2	8	8	12	15	10	10	6	4	80
	2010년 조사학교수	5	2	8	8	11 ¹⁹⁾	15	10	8 ²⁰⁾	6	3 ²¹⁾	
	2011년 조사학교수	5	2	8	8	12	15	10	9 ²²⁾	5 ²³⁾	3 ²⁴⁾	
특성화고	총학교수	5	2	6	4	1	4	1	3	2		28
	2010년 조사학교수	5	2	6	4	1	4	1	3	2		
	2011년 조사학교수	5	2	6	4	1	4	1	3	1 ²⁵⁾		
특목고 (성적)	총학교수	2				1	1					4
	2010년 조사학교수	2					1					
	2011년 조사학교수	2				1 ²⁶⁾	1					
특목고 (특기)	총학교수			2		1						3
	2010년 조사학교수			2		1						
	2011년 조사학교수			2		1						
자율형고 (공립)	총학교수								1			1
	2010년 조사학교수								1			
	2011년 조사학교수								1			
자율형고 (사립)	총학교수	1 ²⁷⁾										1
	2010년 조사학교수											
	2011년 조사학교수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0년~2011년

- 1) 11개 분교 포함.
- 2) 3개교 자료 없음
- 3) 3개교 자료없음.
- 4) 1개교 자료없음.
- 5) 2개교 자료없음
- 6) 5개교 자료없음.
- 7) 6개 분교 자료없음.
- 8) 2개 분교 자료 없음

3) 연구의 한계

- 교육격차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의 결과 측면 이외에도 교육기회와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격차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결과 측면만 다룸으로써 교육결과의 격차만을 확인하고자 하며,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또한, 교육결과의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추론되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 실제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가짐.
-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교육과정에서의 격차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보다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함.
-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 분석 모형에 제시된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

-
- 9) 2010년 1개교 신설.
 - 10) 6개교 자료없음.
 - 11) 6개 분교 자료없음.
 - 12) 2010년, 2011년 동일 1개교 자료없음.
 - 13) 2010년, 2011년 동일 2개교 자료없음
 - 14) 분교 1개교 포함.
 - 15) 2개교 자료없음
 - 16) 3개교 자료없음
 - 17) 2011년 1개교 신설.
 - 18) 1개교 자료없음
 - 19) 1개교 자료없음
 - 20) 2개교 자료없음
 - 21) 1개교 자료없음
 - 22) 1개교 자료없음
 - 23) 1개교 자료없음
 - 24) 1개교 자료없음
 - 25) 1개교 자료없음
 - 26) 2010년 1개교 신설
 - 27) 자료없음

Ⅱ. 교육격차 개념과 관련 요인

1. 교육격차의 개념

1) 유사 개념과 교육격차

- 교육격차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들로 교육불평등과 학력격차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을 엄밀하게 구분한 김병성(200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 교육불평등은 교육격차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주안점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 사상적, 그리고 더 나아가 상징적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임.
- 학력격차는 교육격차의 미시적 관점으로 수업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양적, 질적 변화에서 제기되는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학력을 학업성취의 관점에서 이야기 함.
- 이와 달리, 교육격차는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수용하는데, 교육격차는 사회 및 학교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기능적 측면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으로, 투입요건으로서의 기회균등의 격차, 교육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는 교육효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2) 교육과정별 교육격차 개념

- 교육격차를 교육의 과정별로 세분화하면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산출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됨(김영철, 2003).
- 교육격차의 내용은 교육기회와 교육여건을 포괄하여 투입 단계에서의 교육투입의 격차, 교육 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육효과의 격차 등을 포함하게 됨.
- 교육투입 단계에서의 격차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과 학교장의 지도성, 학교풍토 등과 같은 학교 특성에서의 차이를 말하고,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격차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의 능력, 학습 분위기 등에서의 차이를 말하고, 교육 산출 단계에서의 격차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 등에서의 차이를 말함.

2. 교육격차 관련 요인

1) 개인적 요인

-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학생의 타고난 개인적 능력, 지능, 성취동기, 집중력의 정도 등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음.

2) 사회적 요인

(1)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콜먼 외(Colman et al., 1966)와 젠크스 외(Jencks et al., 1972)의 보고서인데, 미국의 학교교육과 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간 학업성취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학생의 가정배경으로 지목됨.
-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지적된 것은 학생의 포부 수준, 가정의 문화실조, 가정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취향 등의 문화적 요인임(Berstein, 1973; Boudieu, 1973; DiMaggio & Mohr, 1985; 김경근, 1999, 2000).
- 여기서 문화실조론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의 문화적 결핍을 지적하지만, 이때의 문화는 상류층의 고급문화만을 의미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후속 교육학자들에 의해 비판됨.
-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근 부모의 관심과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교육적 지원 활동 같은 부모의 실제적 활동임(류방란·김성식, 2006; 변수용·김경근, 2006).
- 부모의 실제적인 교육적 지원 활동은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강영혜 외, 2005; 양정호, 2006),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는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부모들은 좋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동해 가기도 함. 이런 점에서 사교육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는 과정적 측면 또한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2) 학교의 환경 차이

-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교육과정사회학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문화재생산론과 교육과정사회학의 연구에서는 학교 자체가 문화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 이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상류층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하류층 아동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하류층 아동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어 학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함. 또한, 루터 외(Rutter et al., 1979)의 연구는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설명함.
- 교사의 기대 효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들은 하류층이나 소수 민족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낮은 기대를 가지며 반대로 상류층 아동들에게는 높은 기대를 보이는데, 낮은 기대는 하류층이나 소수 민족 집단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되어 학교교육에서 실패하게 됨.
- 교사의 기대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기대 등 학교 구성원의 기대와 상호인식을 포괄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브루코버(Brookover, 1979)는 '학교풍토'란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그에 따르면, 학교풍토는 학생풍토, 교사풍토, 교장풍토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1> 부르크버의 학교풍토

학생풍토	교사풍토	교장풍토
학구적 무력감	학생의 대학진학능력에 대한 평가, 기대, 교육의 질	양질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기대에 대한 지각
장래에 대한 평가 및 기대	학생의 고교 졸업에 대한 현재의 기대와 평가	학력증진을 위한 노력
학생이 지각한 현재의 평가 및 기대	학력증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기대 일치도	현재 학교의 질적 상태에 대한 학부모와 교장의 평가
교사의 기대 압력과 규범에 대한 지각	교장의 기대에 대한 교사의 지각	학생에 대한 현재의 기대 및 지각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학구적 규범	학구적 무력감	-

자료: Brookover, W. et al.(1979)

-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는데(류방란·김성식, 2006), 학교의 여건 차이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 동문과 지역의 여건 차이의 영향도 받음. 이 학교의 여건 차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침.

(3) 지역의 여건 차이

-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에 투자되는 경비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새롭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김영철(2003)과 하봉운(200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경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학교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에도 영향을 미침.
-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학교 자체의 특성을 구성하며 이것이 학업성취에 독립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며,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고 가정의 문화환경이 빈약한 경우에는 학교의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견해가 최근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학업성취 격차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수준의 변인을 중시하고, 학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은 미시적 수준의 변인을 중시함. 그러나 학업성취의 격차는 이 둘 중 하나의 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양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 견해임.

3) 이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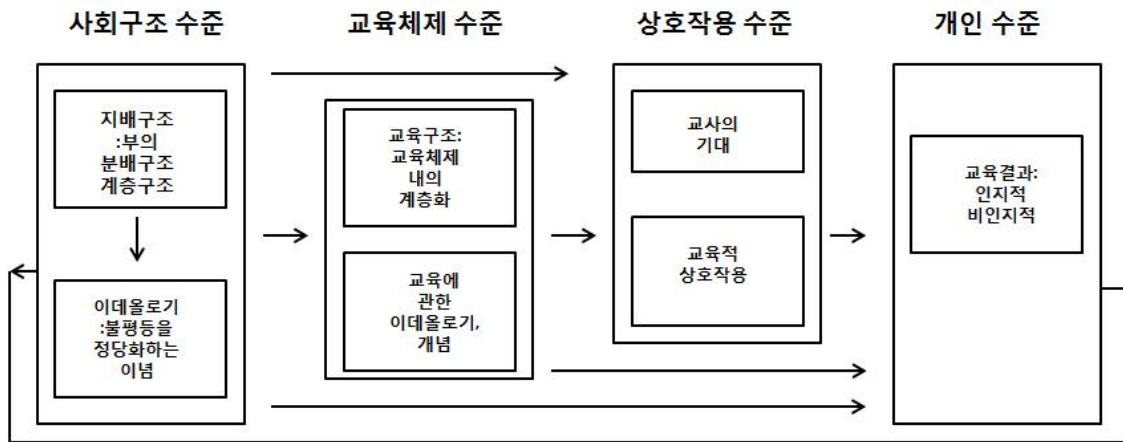
- 사회적 요인이 학생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요인으로 비교적 정적인 요인이라면, 이동요인은 보다 동적인 요인으로서 학생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지역 간에 나타나게 되는 교육격차 유발 요인임.
- 최근 오성배(2004), 강태중(2007), 박종필 외(2008)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의 이동은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남아 있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저해하거나 남아 있는 학생들의 이동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유발 원인으로 새롭게 지목되고 있음. 인천도 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원인임.

3. 교육격차 분석 모형

- 교육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퍼셀(Persell, 1977)과 한정신(1980), 김영철(2003), 고희일 외(2005)의 모형을 소개함.

1) 퍼셀(Persell, 1977)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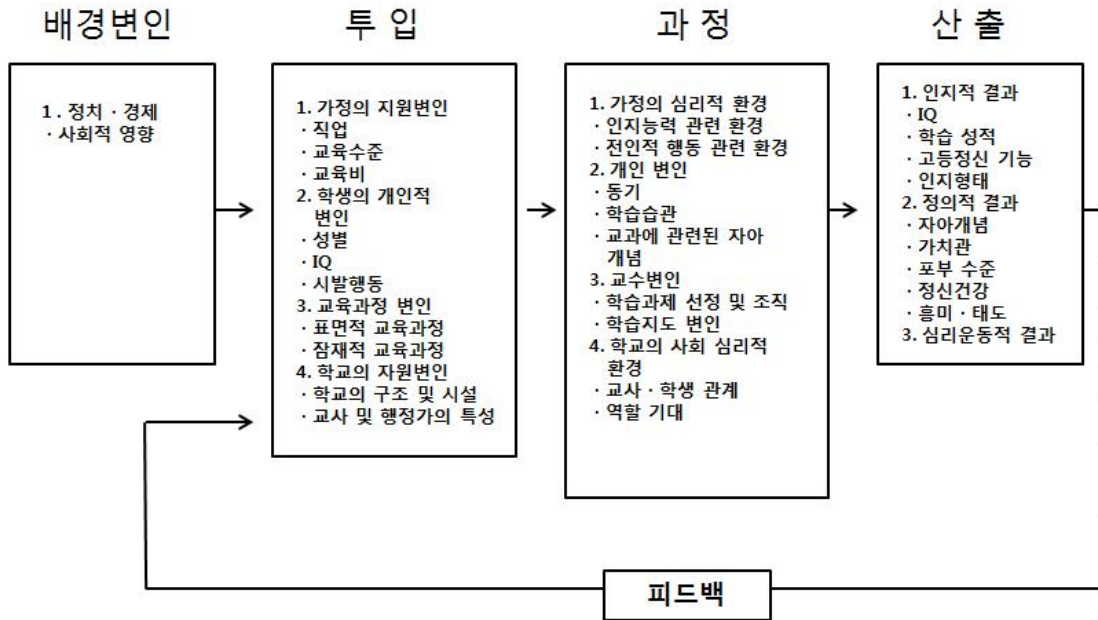
- 이 모형은 사회구조, 교육체제, 상호작용, 개인 등 네 가지 수준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임.



[그림 II-1] 퍼셀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2) 한정신(1980)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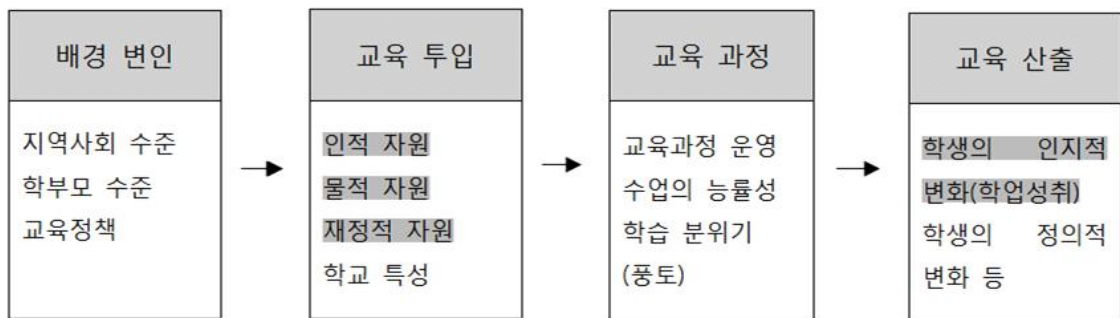
- 이 모형은 교육격차에 관련되는 모든 수준의 변인을 포괄하는 분석 모형임.



[그림 II-2] 한정신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3) 김영철(2003)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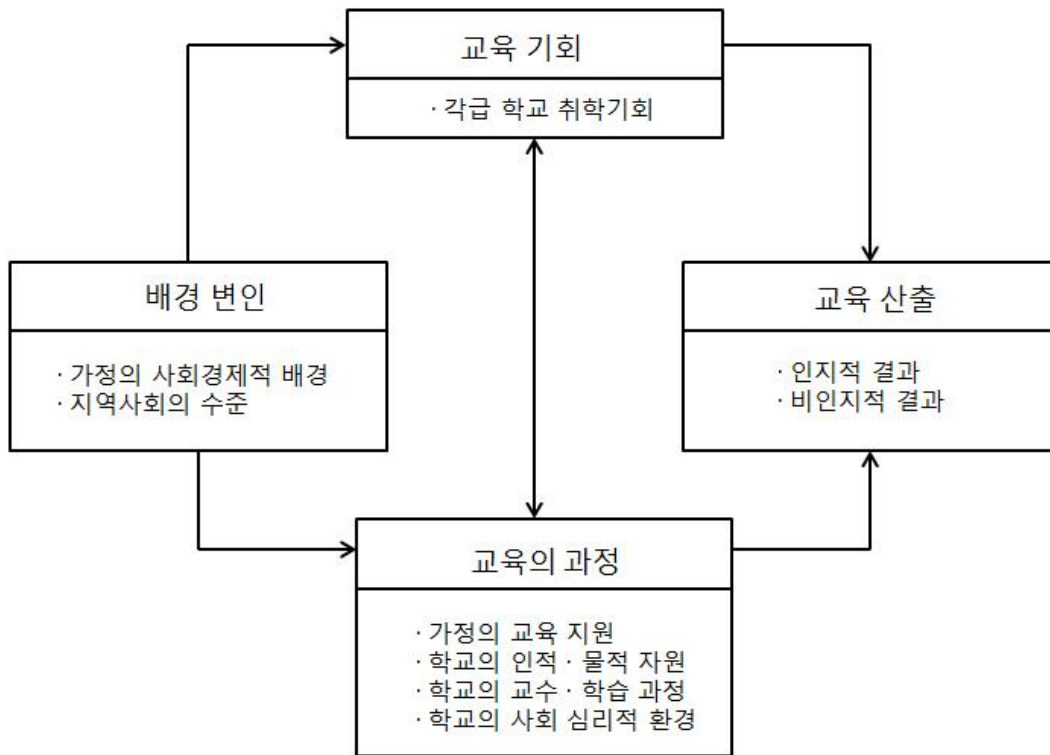
- 이 모형은 한정신(1980)의 것과 유사한데 세부 내용을 좀더 단순화하여 분석한 모형임.



[그림 II-3] 김영철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4) 고흥일 외(2005)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 이 모형은 교육 투입을 교육기회로 설정하여 각급 학교의 취학기회를 분석한 모형임.



[그림 II-4] 고형일 외의 교육격차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분석 모형을 제시한 김영철(2003)의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배경-투입-과정-산출의 모형을 따르되, 학업성취의 격차에 초점을 두기로 한 1차 연구이기에 교육 산출에서 학생의 인지적 변화에 주목하여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 배경 변인이나 투입에 중점을 두는 교육격차 분석은 2차 연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도록 함.

4. 선행연구를 통해 본 교육격차 실태

- 교육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둘러싼 지역 간 격차나 계층 간 격차에 주목하고 있음.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여러 연구들(이성수 외, 1962; 권균 외 1973; 이성진 외, 1980; 정구향 외, 2004)이 보여주고 있음.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개 도시와 농산어촌 혹은 읍면지역의 비교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
- 여기서는 국내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검토하기로 함.

1) 김영철(2003) :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이로 인한 교육적·사회경제적 문제점과 교육격차 유발요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지역 간에 교원격차는 심각하지 않으나, 학교 교육시설에서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며, 학력격차 또한 존재하고 일류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히 나타남. 교육경비지원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각히 나타남. 특히, 강남과 강북 학군 간의 교육시설 격차, 학력격차, 교육경비 지원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간 부의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함.

2) 강영혜 외(2004) :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 2003년 일반계고교 학력평가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배경변인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통해 도시규모별, 설립주체별 고등학교 교육격차를 분석하여,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가정과 지역사회 배경의 불리함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대물림 방지, 농촌을 위한 종합적 방안수립,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함.
- 교육격차 실태로는 교육투입 측면에서 도농 간, 도시지역 간 상당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계 고교의 진학기회, 대학진학률, 사교육 기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정도,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격차가 나타나며, 이는 가정배경의 영향으로 더 심화됨.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교간·지역 간 차이가 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음.
- 교육결과 측면에서도 지역 간·설립주체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의 가정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학교수준의 여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3) 고희일 외(2005) :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격차 분석모형에 따라 교육기회, 과정, 산출 변인별로 사회계층 및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해소 정책 방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교사의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사회계층 간 교육격차 실태로 고교와 대학교 취학기회에서 계층 간·지역 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고, 계층 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에 격차가 있으며, 계층 간 학교시설 격차, 교원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격차가 존재함.

4) 성열관 외(2005) :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

- 서울시 교육격차 사례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격차해소 노력이 요구되는데, 학업성취부진학생관별 및 지원과 교육기관의 지역균형배치 및 지역 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원 격차 해소, 그리고 지자체 및 자치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며, 교육격차해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함.
-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지역 간 교육여건(시설, 교사),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소비자들이 투입하는 사교육비 면에서 격차가 심각히 나타남.

5) 류방란 외(2006) :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 부모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학생과 학교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학교경험수준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평등의 재생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에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일과 병행되어야 효과적임.
-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생의 학교 경험 수준, 학업성취 수준의 계층 간·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일부 양극화의 모습도 보임.
- 가정배경 수준은 학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 경험의 수준도 독립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위 계층 아동에게 더 의미 있게 작용함.

6) 하봉운(2004) :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경기도의 지역 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실태 분석과 격차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역 간 교육여건 균등화와 교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구체적 해소 방안을 제안함.
- 경기도 지역 간 특히 도농 간의 교육기회 격차와 교원격차, 교육시설 격차가 심각히

나타나고 더불어 교육재정 지원격차도 심각히 나타남.

7) 박종필 외(2008)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 제주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지역에 중점을 둔 해소방안을 제안함.
- 기초학력평가를 토대로 볼 때 지역 간 학업성취에 심각한 격차가 있으며, 학교 교육 환경과 사교육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학생 이동 변인도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분석됨.

8) 서지영(2010) :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연구

- 대구시 구군별 교육격차를 배경, 투입, 산출 영역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분석하여 교육격차 실태를 보여주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 우선 순위, 사업방향 및 영역, 지원방법, 프로그램(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영역별 진단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한 구군별 교육격차 실태는 양호한 지역(수성구와 달서구), 미흡한 지역(중구, 동구, 북구, 남구), 열악한 지역(서구, 달성군)으로 구분됨.

Ⅲ.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중심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 평가임.
- 2011년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역시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취지는 첫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정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 둘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셋째,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 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 넷째, 질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방법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임.
- 학업성취도 평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중앙교육연구소의 '기초학력조사', 행동과학연구소의 '학교교육의 전국적 평가연구'(권균 외, 1973), 한국교육개발원의 '새 교육체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학력평가'가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평가들은 일회성 평가에 불과하였음.
- 이어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면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 시기 수행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는 주요과목을 2년 주기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까지 시행되었음.
- 1998년부터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3%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 평가로 시행되었고, 그러다가 2009년부터 다시 전국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일제히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뀐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것이 '일제고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 10년 만에 일제고사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인데,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

년이었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험 시기 또한 매년 10월이었다가 2010년부터 7월로 변경되었음.

- 평가 과목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였다가 201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의 3개 교과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도 국어·수학·영어의 3개 교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문항은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와 영어 과목은 듣기 평가도 함께 실시하며, 모든 학생과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됨.
-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며 출제범위는 초등학교 6학년은 4~6학년(6학년 1학기) 과정, 중학교 3학년은 1~3학년(3학년 1학기) 과정, 고등학교 2학년은 1학년 과정임.
-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데 교과별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의 4단계로 성적이 표시됨.
- 2010년부터는 학교별 응시현황 및 과목별 성취수준 3단계 비율(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을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었음.

<표 III-1> 연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내용

연도	개요	평가대상		평가영역	평가지기
		학년	비율		
1998	기본계획수립				
1999	.사회, 수학의 평가틀과 성취기준, 예비문항 개발, 예비검사 실시 .배경변인 설문지 개발	초6 중3 고2		사회, 수학	
2000	.국어, 과학, 영어의 평가틀, 성취기준, 예비문항 개발, 예비검사 실시 .사회, 수학 본검사 실시 및 배경변인 설문지 조사 .기본 계획 틀에서 영어가 기본평가 교과로 바뀜	초6 중3 고2	0.5% 0.5% 0.5%	사회, 수학, 배경변인	6월 28일
2001	.5개 교과 본검사 실시 .초6은 영어 제외 .교육부 요청에 따라 고1이 포함되고 표본이 1%로 확대됨	초6 중3 고1 고2	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6월 28일
2002	.평가 시기를 2일간으로 확대 .평가 대상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종료 시점인 고1로 조정	초6 중3 고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1월 25일~26일 (2일 실시)
2003	.2003년을 추이분석의 기준 연도로 설정 .검사 동등화 방법 개발 및 적용 .집중/기본교과로 이원화하여 집중교과는 검사지 2종 개발 .집중교과: 국어, 수학	초6 중3 고1	1% 1%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22일~23일 (2일 실시)
2004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집중교과 검사지 2종 개발 .고1 표집 비율 확대	초6 중3 고1	1% 1%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20일~21일 (2일 실시)
2005	.집중교과: 국어, 수학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집중교과는 배경변인 중 교과 관련 내용 포함	초6 중3 고1	1% 1%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19일~20일 (2일 실시)
2006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초6, 중3 표집 비율 확대하여 모든 학년 동일하게 3% 표집	초6 중3 고1	3% 3% 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18일~19일 (2일 실시)

2007	.집중교과: 국어, 수학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고1 표집 비율 확대	초6 중3 고1	3% 3% 5%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16일~17일 (2일 실시)
2008	.집중교과: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교과 검사지 2종 개발 .초6, 중3 표집 비율 확대하여 모든 학년 동일하게 5% 표집 .표집 외 학교의 교육청 주관 확대 시행	초6 중3 고1	4% 5% 5%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14일~15일 (2일 실시)
2009	. 표집비율 1%(동등화 자료수집) . 표집외 전수 시행	초6 중3 고1	전집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배경변인	10월 13일~14일 (2일 실시)
2010	. 교과별 평가틀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평가도구 개발	초6 중3	전집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7월 13일~14일 (2일 실시)
		고2		국어, 수학, 영어	7월 13일
2011	. 평가문항의 질 제고, 성적통지 개선 등	초6	전집	국어, 수학, 영어	7월 12일~13일 (2일 실시)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7월12일
		고2		국어, 수학, 영어	
2012 (시행 예정)	. 2012년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평가제외 . 2012년 초 고등학교 대상으로 최초 공시되었던 학력향상도는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공시	초6	전집	국어, 수학, 영어	6월 26일 실시예정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2		국어, 수학, 영어	

2. 인천시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1) 초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인천시 군·구별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연수구와 중구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계양구와 서구가 부진한 상태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011년의 경우에는 연수구와 강화군, 부평구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서구, 옹진군, 계양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0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 외의 경우 연수구와 중구, 부평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옹진군, 계양구, 서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 남구가 낮고 서구와 동구가 높게 나타남.
- 사회 교과와 국어 교과 외의 경우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 순으로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계양구, 서구와 옹진군이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중구가 낮고 계양구와 부평구가 높게 나타남.
- 수학 교과와 국어 교과 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비율이 연수구, 옹진군, 중구의 순으로 높으며 서구, 계양구, 남구의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중구가 낮고 계양구와 동구가 높게 나타남.
- 과학 교과와 국어 교과 외의 경우 연수구와 옹진군, 중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남구와 계양구, 서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가 낮으며 계양구와 부평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와 국어 교과 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연수구와 중구, 강화군이며, 옹진군과 계양구, 서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연수구와 옹진군이 낮고 서구와 계양구가 높음.
- 요컨대, 2010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연수구와 중구가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계양구와 서구는 비교적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도 높음.

<표 III-2> 2010 구별 초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78.1	77.8	76.6	85.0	76.7	78.0	73.8	74.3	74.9	71.1
	기초학력	20.7	20.4	22.3	13.9	22.1	20.8	24.5	23.7	24.2	28.9
	기초학력미달	1.2	1.8	1.1	1.1	1.2	1.2	1.7	2.0	0.9	0.0
사회	보통학력이상	75.7	75.1	73.5	80.1	74.3	72.9	70.1	70.6	75.2	71.1
	기초학력	23.6	23.2	24.9	19.0	24.3	25.2	27.7	27.6	23.6	28.9
	기초학력미달	0.7	1.7	1.6	0.9	1.4	1.9	2.2	1.8	1.2	0.0
수학	보통학력이상	75.5	74.8	72.5	82.8	74.6	74.6	72.0	71.5	74.7	76.0
	기초학력	23.9	23.5	26.2	16.4	24.2	24.1	26.2	27.1	23.7	24.0
	기초학력미달	0.6	1.7	1.3	0.8	1.2	1.3	1.8	1.4	1.6	0.0
과학	보통학력이상	85.8	84.9	82.6	89.2	85.3	85.7	83.2	83.3	83.8	85.9
	기초학력	13.1	14.1	16.0	9.9	13.4	12.7	15.1	15.2	14.9	14.1
	기초학력미달	1.1	1.0	1.4	0.9	1.3	1.6	1.7	1.5	1.3	0.0
영어	보통학력이상	83.3	81.0	81.3	89.9	80.7	82.5	79.5	79.5	82.6	69.4
	기초학력	15.3	17.1	17.1	9.3	17.4	15.8	18.3	18.1	16.5	29.8
	기초학력미달	1.4	1.9	1.6	0.8	1.9	1.7	2.2	2.4	0.9	0.8
	학교수	11 ²⁸⁾	8	22	20 ²⁹⁾	33 ³⁰⁾	42	26 ³¹⁾	35 ³²⁾	18 ³³⁾	7 ³⁴⁾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표 III-3> 2011 구별 초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84.2	84.4	82.4	88.3	83.1	84.8	80.9	79.5	87.5	80.2
	기초학력	15.6	15.3	17.0	11.3	16.2	14.8	18.2	19.7	12.3	18.8
	기초학력미달	0.2	0.3	0.6	0.4	0.7	0.4	0.9	0.8	0.2	1.0
수학	보통학력이상	78.1	77.3	78.3	88.0	80.6	82.5	77.5	76.0	86.7	77.1
	기초학력	21.3	21.6	20.8	11.5	18.3	16.8	21.3	22.6	13.3	21.9
	기초학력미달	0.6	1.1	0.9	0.5	1.1	0.7	1.2	1.4	0.0	1.0
영어	보통학력이상	88.3	88.8	88.6	94.5	90.1	90.9	87.3	86.8	94.7	92.7
	기초학력	11.3	10.8	11.1	5.2	9.5	8.7	12.1	12.5	5.3	7.3
	기초학력미달	0.4	0.4	0.3	0.3	0.4	0.4	0.6	0.7	0.0	0.0
	학교수	12 ³⁵⁾	8	22	21	36	42	27	37 ³⁶⁾	17 ³⁷⁾	7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28) 14개교 중 3개교 자료없음
- 29) 현재 21개교로 2010년 9월 신청초 신설
- 30) 36개교 중 3개교 자료없음
- 31) 27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 32) 38개교 중 3개교 자료없음
- 33) 23개교 중 5개교 자료없음
- 34) 13개교 중 6개교 자료없음(2010년, 2011년 모두 해당).
- 35) 14개교 중 2개교 자료없음

- 2011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에의 경우 연수구와 강화군, 부평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서구와 용진군, 계양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중구와 강화군, 동구가 낮고 용진군과 계양구, 서구가 높게 나타남.
- 수학 교과에의 경우 보통학력이상비율이 연수구, 강화군과 부평구의 순으로 높으며 서구, 용진군과 동구의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연수구, 중구가 낮고 서구와 계양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에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강화군과 연수구, 용진군이며, 낮은 지역이 서구, 계양구, 중구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용진군은 0%이고 연수구가 낮으며, 서구와 계양구가 높게 나타남.
- 요컨대, 2011년의 경우 연수구와 강화군, 부평구가 비교적 학력이 높게 나타났고, 서구와 용진군, 계양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서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편임.
- 2010년과 2011년의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수구임을 알 수 있고,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서구와 계양구, 용진군임을 알 수 있음. 중구 지역은 2010년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아졌고, 강화군은 높아졌으며, 서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대책이 필요함.

2) 중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인천시 군·구별 중학교의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연수구와 부평구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용진군과 동구, 중구가 부진한 상태를 보임. 2011년의 경우에는 연수구와 강화군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동구와 용진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0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에의 경우 연수구와 남구, 부평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용진군, 동구, 중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연수구와 남구가 낮고 용진군과 강화군, 동구가 높게 나타남.
- 사회 교과에의 경우 강화군, 연수구, 남구의 순으로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용진군과 동구, 중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남구가 낮고 용진군과 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36) 38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37) 23개교 중 6개교 자료없음

- 수학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비율이 연수구와 부평구, 강화군 순으로 높으며 옹진군과 동구, 중구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가 낮고 중구와 부평구가 높게 나타남.
- 과학 교과외의 경우 강화군과 연수구, 남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옹진군, 동구와 중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낮으며 중구와 남동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연수구와 부평구, 계양구이며, 옹진군과 동구, 중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연수구와 강화군이 낮고 옹진군과 동구가 높음.
- 요컨대, 2010년의 경우 중학교는 연수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구와 강화군, 남구가 비교적 양호한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옹진군과 동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며, 중구도 비교적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옹진군과 동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I-4> 2010 구별 중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73.1	70.5	79.1	83.3	77.8	78.9	78.1	76.7	76.6	68.4
	기초학력	24.8	27.2	19.2	15.4	20.0	19.3	19.8	21.1	21.1	26.6
	기초학력미달	2.1	2.3	1.7	1.3	2.2	1.8	2.1	2.2	2.3	5.0
사회	보통학력이상	67.0	62.0	72.3	73.9	68.5	71.2	69.0	67.1	75.5	60.8
	기초학력	29.4	32.9	24.6	22.7	27.3	23.9	27.0	28.6	22.4	34.1
	기초학력미달	3.6	5.1	3.1	3.4	4.2	4.9	4.0	4.3	2.1	5.1
수학	보통학력이상	54.6	51.1	57.6	71.1	57.9	62.5	59.2	58.3	60.9	45.6
	기초학력	40.3	44.2	38.3	25.4	37.4	32.4	36.2	37.4	35.2	53.2
	기초학력미달	5.1	4.7	4.1	3.5	4.7	5.1	4.6	4.3	3.9	1.2
과학	보통학력이상	58.7	56.7	63.0	67.6	61.0	62.8	61.3	59.2	68.0	51.9
	기초학력	35.4	38.8	32.8	28.2	33.7	32.2	33.7	35.9	30.4	45.6
	기초학력미달	5.9	4.5	4.2	4.2	5.3	5.0	5.0	4.9	1.6	2.5
영어	보통학력이상	60.2	57.4	61.2	77.6	64.4	67.5	65.8	64.0	64.3	57.0
	기초학력	35.1	37.7	34.7	20.1	31.8	29.2	31.1	32.3	32.9	36.7
	기초학력미달	4.7	4.9	4.1	2.3	3.8	3.3	3.1	3.7	2.8	6.3
	학교수	8	4	12	14 ³⁸⁾	20 ³⁹⁾	21	14 ⁴⁰⁾	17 ⁴¹⁾	9 ⁴²⁾	5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표 III-5> 2011 구별 중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84.2	81.2	86.6	89.2	84.9	85.2	85.5	83.3	86.7	80.9
	기초학력	15.1	17.6	12.9	10.5	14.5	14.1	14.0	15.8	12.8	19.1
	기초학력미달	0.7	1.2	0.5	0.3	0.6	0.7	0.5	0.9	0.5	0.0
사회	보통학력이상	72.1	63.4	72.8	75.8	71.6	69.7	71.2	69.3	78.1	69.2
	기초학력	24.4	30.1	24.6	21.6	24.9	26.1	25.5	26.4	19.6	28.7
	기초학력미달	3.5	6.5	2.6	2.6	3.5	4.2	3.3	4.3	2.3	2.1
수학	보통학력이상	60.3	57.9	65.3	74.8	66.1	67.2	65.0	63.0	71.1	61.7
	기초학력	36.2	37.3	32.3	22.9	30.8	29.1	32.1	33.6	27.9	35.1
	기초학력미달	3.5	4.8	2.4	2.3	3.1	3.7	2.9	3.4	1.0	3.2
과학	보통학력이상	64.8	61.1	72.5	74.9	69.0	68.4	69.2	66.2	78.6	61.7
	기초학력	33.0	36.2	26.2	23.2	28.7	28.8	29.0	31.5	20.4	36.2
	기초학력미달	2.2	2.7	1.3	1.9	2.3	2.8	1.8	2.3	1.0	2.1
영어	보통학력이상	69.0	61.6	70.4	81.2	71.6	73.0	71.1	67.9	72.8	76.6
	기초학력	30.2	37.5	29.0	18.2	27.4	26.1	27.6	31.0	26.7	23.4
	기초학력미달	0.8	0.9	0.6	0.6	1.0	0.9	1.3	1.1	0.5	0.0
학교수		8	4	12	15	21	21	14 ⁴³⁾	19 ⁴⁴⁾	9 ⁴⁵⁾	5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2011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의 경우 연수구와 강화군, 남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옹진군과 동구, 서구가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가 낮고 동구와 서구가 높게 나타남.
- 사회 교과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강화군과 연수구, 남구의 순으로 높으며 동구와 옹진군, 서구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강화군이 낮고 동구와 서구가 높게 나타남.
- 수학 교과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연수구와 강화군, 부평구의 순으로 높으며, 동구와 중구, 옹진군이 낮은 비율을 보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연수구가 낮으며 동구와 부평구가 높은 편임.

38) 현재 15개교로 2011년 신청중 신설.

39) 22개교 중 2개교 자료없음

40) 15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41) 20개교 중 3개교 자료없음

42) 11개교 중 2개교 자료없음

43) 15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44) 20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45) 11개교 중 2개교 자료없음

- 과학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강화군과 연수구, 남구가 높으며, 동구와 웅진군, 중구가 낮은 편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강화군과 남구가 낮으며 부평구와 동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연수구와 웅진군, 부평구이며, 낮은 지역이 동구와 서구, 중구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웅진군과 강화군이 현저히 낮으며 계양구와 서구가 높게 나타남.
- 요컨대, 2011년의 경우 연수구와 강화군, 남구가 비교적 학력이 높게 나타났고, 동구와 웅진군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동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함.
- 2010년과 2011년의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연수구임을 알 수 있고,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동구와 웅진군임을 알 수 있음. 부평구는 2010년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아진 반면, 강화군이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 연수구보다 우수한 학업성취수준을 보임. 동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아 대책이 필요함.

3) 고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고등학교는 학교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이 분류에 따라 고등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달라짐. 따라서 고등학교는 종합적으로 단일하게 비교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여기서는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를 비교해 보기로 함.
-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분류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고등학교로 구분됨. 일반계 고등학교는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것으로 후기 고등학교이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거 실업계 혹은 전문계라 불렸던 것으로 직업계열 전기 고등학교이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고등학교이며, 자율형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고등학교를 말함.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처럼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는 학교도 있고, 예체능이나 직업 계열의 특기를 우선으로 하는 고등학교도 있음.
- 2011년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일반계고등학교는 80개교, 특성화고등학교는 28개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7개교, 자율형고등학교는 공립 1개, 사립 1개로 총 2개교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일반계, 특성화, 특수목적고, 자율형고교로 구분하여 학업성취 실태를 보여주고자 함.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성적우선과 특기우선 학교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로 함.

가.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인천시 군·구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연수구와 부평구, 남동구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부진한 상태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011년의 경우에는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0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외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옹진군과 강화군, 계양구가 낮음.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서구와 남동구가 낮으며,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높음.
- 수학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의 순으로 높으며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낮은 편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부평구가 낮고,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외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연수구와 남구, 부평구이며,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가 낮고 강화군과 동구가 높음.

<표 III-6> 2010 구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78.2	79.7	82.2	84.3	82.5	82.5	77.8	78.4	66.6	65.4
	기초학력	19.5	16.7	16.1	14.2	16.3	15.9	20.3	20.5	27.3	28.8
	기초학력미달	2.3	3.6	1.7	1.5	1.2	1.6	1.9	1.1	6.1	5.8
수학	보통학력이상	70.7	71.9	79.5	83.0	81.0	80.3	75.4	73.5	61.5	42.3
	기초학력	25.5	24.4	17.9	14.6	16.8	17.5	21.5	23.6	31.0	48.1
	기초학력미달	3.8	3.7	2.6	2.4	2.2	2.2	3.1	2.9	7.5	9.6
영어	보통학력이상	58.8	61.8	69.0	76.7	68.6	69.0	64.1	58.2	45.6	50.0
	기초학력	39.2	33.2	29.2	22.4	30.3	29.6	34.0	40.0	48.9	50.0
	기초학력미달	2.0	5.0	1.8	0.9	1.1	1.4	1.9	1.8	5.5	0.0
학교수		5	2	8	8	11 ⁴⁶⁾	15	10	8 ⁴⁷⁾	6	3 ⁴⁸⁾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 옹진군: 종합고 1개교 포함

- 요컨대, 2010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구와 부평구, 남동구가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교적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강화군, 옹진군과 더불어 동구가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의 감소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표 III-7> 2011 구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83.6	88.2	90.6	91.5	90.0	87.4	84.4	85.9	78.1	63.2
	기초학력	14.7	9.5	8.5	8.0	9.5	11.3	14.4	13.5	19.9	36.8
	기초학력미달	1.7	2.3	0.9	0.5	0.5	1.3	1.2	0.6	2.0	0.0
수학	보통학력이상	77.7	81.5	86.1	90.5	86.6	84.0	81.1	80.4	73.2	60.5
	기초학력	16.5	13.2	11.4	8.0	11.8	13.1	15.5	16.5	20.0	34.3
	기초학력미달	5.8	5.3	2.5	1.5	1.6	2.9	3.4	3.1	6.8	5.2
영어	보통학력이상	82.2	83.1	87.3	92.9	89.3	86.9	84.9	84.9	76.7	65.8
	기초학력	14.2	12.5	10.5	5.9	9.6	10.7	12.8	13.1	17.7	28.9
	기초학력미달	3.6	4.4	2.2	1.2	1.1	2.4	2.3	2.0	5.6	5.3
	학교수	5	2	8	8	12	15	10	9 ⁴⁹⁾	5 ⁵⁰⁾	3 ⁵¹⁾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2011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의 경우 연수구와 남구, 남동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낮음.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옹진군과 연수구, 남동구가 낮으며 동구와 강화군이 높음.
- 수학 교과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의 순으로 높으며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낮은 편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연수구와 남동구가 낮고, 강화군과 중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이며,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연수구가 낮고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높음.
- 요컨대, 2011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가 비교적 높은 학력

46) 12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47) 10개교 중 2개교 자료없음
 48) 4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49) 10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50) 6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51) 4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용진군과 강화군, 중구가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음. 동구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은 낮은 순위가 아니지만,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고, 강화군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편임.

- 2010년과 2011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연수구임을 알 수 있고 남동구도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용진군과 강화군임을 알 수 있음.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평구의 경우 2010년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아졌고, 남구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강화군과 동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음.

나. 특성화 고등학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인천시 군·구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중구와 서구, 남동구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남구와 연수구, 동구가 부진한 상태를 보임. 2011년의 경우에는 중구와 남동구, 서구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연수구와 강화군, 계양구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0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의 경우 중구와 남동구, 서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남구와 연수구, 동구가 낮음.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중구가 낮으며, 남구와 연수구가 높음.

<표 III-8> 2010 구별 특성화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용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63.4	34.6	22.5	25.7	54.3	40.4	35.1	51.3	40.0	
	기초학력	34.1	61.1	51.7	50.9	43.9	54.6	58.6	38.8	47.7	
	기초학력미달	2.5	4.3	25.8	23.4	1.8	5.0	6.3	9.9	12.3	
수학	보통학력이상	41.4	19.2	11.2	17.2	30.1	26.2	20.1	30.5	18.9	
	기초학력	49.4	65.2	63.0	60.1	58.6	57.5	65.8	51.9	55.6	
	기초학력미달	9.1	15.6	25.8	22.7	11.3	16.3	14.1	17.6	25.5	
영어	보통학력이상	35.9	7.5	5.9	8.4	25.5	9.6	4.7	29.2	20.0	
	기초학력	60.8	84.6	66.9	66.9	73.9	81.1	84.3	61.3	63.3	
	기초학력미달	3.2	7.9	27.2	24.7	0.6	9.3	11.0	9.5	16.7	
학교수		5	2	6	4	1	4	1	3	2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 수학 교과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중구와 서구, 남동구의 순으로 높으며 남구

와 연수구, 강화군이 낮은 편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중구와 남동구가 낮고, 남구와 강화군이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목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구와 서구, 남동구이며, 남구와 계양구, 동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중구가 낮고 남구와 연수구가 높음.
- 요컨대, 2010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중구와 서구, 남동구가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남구와 연수구, 동구가 비교적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남구와 연수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도 높음.

<표 III-9> 2011 구별 특성화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80.6	51.6	46.1	39.9	74.5	58.8	57.7	60.1	54.2	
	기초학력	18.6	47.1	44.5	53.7	25.5	39.5	39.7	35.2	41.6	
	기초학력미달	0.8	1.3	9.4	6.4	0.0	1.7	2.6	4.7	4.2	
수학	보통학력이상	67.5	41.7	39.2	33.0	62.3	50.2	38.7	47.5	27.8	
	기초학력	28.4	47.9	43.5	48.3	34.1	38.4	45.2	37.1	51.4	
	기초학력미달	4.1	10.4	17.3	18.7	3.6	11.4	16.1	15.4	20.8	
영어	보통학력이상	77.2	49.1	42.5	39.4	70.2	51.3	42.3	53.5	41.7	
	기초학력	21.3	44.6	44.5	45.2	27.5	38.8	45.6	36.8	47.2	
	기초학력미달	1.5	6.3	13.0	15.4	2.3	9.9	12.1	9.7	11.1	
	학교수	5	2	6	4	1	4	1	3	1 ⁵²⁾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2011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목의 경우 중구와 남동구, 서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연수구와 남구, 동구가 낮음.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중구가 낮으며, 남구와 연수구가 높음.
- 수학 교과목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중구와 남동구, 부평구의 순으로 높으며 강화군, 연수구와 계양구가 낮은 편임.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남동구와 중구가 낮고, 강화군과 연수구가 높게 나타남.
- 영어 교과목의 경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구와 남동구, 서구이며, 연수구와 강화군, 계양구가 낮게 나타남.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중구와 남동구가 낮고 연수구와 남구가 높음.

52) 2개교 중 1개교 자료없음

- 요컨대, 2011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중구와 남동구, 서구가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수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연수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편임.
- 2010년과 2011년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임을 알 수 있고 남동구와 서구도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은 연수구임을 알 수 있음. 연수구는 기초학력미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다. 지역 간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격차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등학교로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입학전형에 학업성적이 중요한 고교와 특기가 중요한 고교로 나눌 수 있음. 학업성적이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고, 외교, 국제고를 들 수 있으며, 특기가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를 들 수 있음. 두 종류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업성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함. 인천광역시에서 전자에 속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10년에 3개교, 2011년에 4개교가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3개교가 있음.

<표 III-10> 2010 구별 특수목적(성적우선)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97.4					95.9				
	기초학력	2.2					4.1				
	기초학력미달	0.4					0.0				
수학	보통학력이상	100.0					98.8				
	기초학력	0.0					0.9				
	기초학력미달	0.0					0.3				
영어	보통학력이상	98.2					98.8				
	기초학력	1.8					1.2				
	기초학력미달	0.0					0.0				
학교수		2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 먼저, 성적을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하여 선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0년도의 경우 중구나 부평구 모두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 또한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도의 경우 중구의 특목고는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모두 100%를 달성하였고, 남동구의 경우에도 거의 100%에 가까움. 부평구도 여전히 높은 학력 수준을 보임.

<표 III-11> 2011 구별 특수목적(성적)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 어	보통학력이상	100.0				100.0	96.5				
	기초학력	0.0				0.0	2.9				
	기초학력미달	0.0				0.0	0.6				
수 학	보통학력이상	100.0				99.5	98.3				
	기초학력	0.0				0.5	0.9				
	기초학력미달	0.0				0.0	0.8				
영 어	보통학력이상	100.0				100.0	99.4				
	기초학력	0.0				0.0	0.3				
	기초학력미달	0.0				0.0	0.3				
	학교수	2				1 ⁵³⁾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반면에, 특기를 중요한 전형자료로 선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다른데, 2010년도의 경우 남동구의 학력수준이 남구의 학력수준보다 월등히 높음.
- 그런데 2011년도의 경우 여전히 남동구의 학력수준이 남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수학 교과외의 경우 오히려 남구가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남동구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남구의 경우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학력수준이 월등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구의 1개교가 마이스터고교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53) 2010년 미추홀외고 자료없음(2010년 3월 3일 신설)

<표 III-12> 2010 구별 특수목적(특기)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10.7		67.3					
	기초학력			68.8		28.9					
	기초학력미달			20.5		3.8					
수학	보통학력이상			7.0		28.3					
	기초학력			69.8		60.4					
	기초학력미달			23.2		11.3					
영어	보통학력이상			1.4		54.7					
	기초학력			78.2		42.8					
	기초학력미달			20.4		2.5					
학교수				2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표 III-13> 2011 구별 특수목적(특기)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65.9 ⁵⁴⁾		88.7					
	기초학력			26.4		9.0					
	기초학력미달			7.7		2.3					
수학	보통학력이상			58.3		40.7					
	기초학력			32.8		48.0					
	기초학력미달			8.9		11.3					
영어	보통학력이상			72.8		88.1					
	기초학력			21.7		9.6					
	기초학력미달			5.5		2.3					
학교수				2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라. 지역 간 자율형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격차

- 인천광역시 내 자율형 고등학교는 2011년에 2개교로 사립 1개교와 공립 1개교가 있는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공립 1개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만을 제시함. 따라서 지역 간 비교는 어렵고 자율형 공립고의 학업성취수준을 보여주고자 함.

54) 2009년 2월 12일 인천전자공고가 인천전자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10년 3월 새롭게 개교함.

<표 III-14> 2010 구별 자율형공립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96.2		
	기초학력								3.8		
	기초학력미달								0.0		
수학	보통학력이상								86.8		
	기초학력								12.9		
	기초학력미달								0.3		
영어	보통학력이상								84.5		
	기초학력								15.5		
	기초학력미달								0.0		
	학교수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0년 자료 가공

<표 III-15> 2011 구별 자율형공립 고등학교 학력비교

(단위: %, 개)

	구 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어	보통학력이상								98.3		
	기초학력								1.4		
	기초학력미달								0.3		
수학	보통학력이상								96.4		
	기초학력								3.3		
	기초학력미달								0.3		
영어	보통학력이상								96.7		
	기초학력								3.3		
	기초학력미달								0.0		
	학교수								1		

출처 : 학교알리미 2011년 자료 가공

- 2011년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곳은 서구에 소재한 1개교이고, 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 연수구의 수준보다 높으며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수준이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전 교과에서 증가하였고, 기초학력미달의 비율도 대체로 감소하였으므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3.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 인천광역시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를 요약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연수구가 가장 학력수준이 높고 서구와 계양구는 낮다고 할 수 있음. 강화군의 학력수준은 2010년도에 비해 향상된 반면 중구는 하락하였고, 서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음.
- 중학교의 경우 연수구의 학력수준이 높고 옹진군과 동구는 낮다고 할 수 있음. 부평구는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한 반면 강화군은 현격히 상승하였는데, 특히 사회와 과학 교과와 경우 2011년도에는 연수구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임. 동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대체로 높다는 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가 필요해 보임.
-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의 학력수준이 높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낮음. 남구의 학력수준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향상된 반면 부평구는 하락하였음.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동구와 강화군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중구와 남동구, 서구의 학력수준이 높고 연수구가 낮음. 연수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 또한 높아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 보임.
-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특기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의 경우 남동구의 학력수준이 높고 남구 또한 2011년도에는 큰 향상도를 보이고 있음. 남구의 마이스터고가 학업성취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마이스터고의 효과에 대하여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서구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수성과 지역의 선호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연수구가 초·중·일반계고 급에서 우수한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에서 강화군의 학력향상이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 중구는 특성화고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반면, 초등학교 급보다 중학교와 일반계고급에서 학력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생이동의 요인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전반적으로 남동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보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모두에서 비교

적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강화군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지만 고등학교 급에서는 학력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학생이동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용진군은 초·중·고에서 모두 학력수준이 낮음.
- 전반적으로 계양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급에 비해 초등학교 급에서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고, 부평구는 초등학교 급에서는 우수한 편이지만, 중학교와 일반계고교 급에서는 학력수준이 2010년에 비해 하락하였음.
- 초등학교 급에서는 서구가, 중학교 급에서는 동구가, 일반계고교 급에서는 강화군과 동구가, 특성화고교 급에서는 연수구가 기초학력미달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IV.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및 발생 원인

1. 지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

1) 교육적 문제

(1) 지역 간 교육 불평등

- 지역 간에 교육결과인 학업성취도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나 교육의 과정에서 지역 간에 불평등 현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명목상의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학교의 종류나 수준, 규모에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내에서도 발생함.
-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소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교육기회의 부여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곧 교육의 과정상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지역 간의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거주지역에 따른 우월의식 조장

- 지역 간에 나타나는 교육불평등 현상은 학생들에게 거주지역에 따라 우월의식을 가지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자신의 학교수준이나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곧 자신의 거주지역에 따라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거주지역에 따라 우월의식이 조장됨으로써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격차가 불합리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이는 곧 교육의 평등성 이념에 위반되는 것임.

(3) 학교 부적응 발생

- 거주지역에 따른 우열의식 조장은 취약지역의 교육기회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 취약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단계여서 인천교육통계에서 학업중단을 유예와 면제로만 구분하고 있어 학교 부적응의 유무를 알기 어렵기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으로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살펴보았음.
- 일반계 고교의 경우, 지역별로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과 중구, 서구이고,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와 중구, 서구로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역은 계양구와 중구, 서구라고 할 수 있음.
- 학업성취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연수구, 남동구, 남구 등은 학교 부적응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학교 부적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IV-1> 2011년 일반계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중 구	4,346	81(1.86)	7(0.16)	8(0.18)	-	38(0.87)	28(0.64)
동 구	1,709	21(1.23)	4(0.23)	1(0.06)	-	10(0.59)	6(0.35)
남 구	9,404	118(1.25)	12(0.13)	-	-	33(0.35)	73(0.78)
연수구	10,995	156(1.42)	8(0.07)	8(0.07)	1(0.0001)	39(0.35)	100(0.91)
남동구	13,922	192(1.38)	15(0.11)	12(0.09)	-	68(0.49)	97(0.70)
부평구	17,046	248(1.45)	21(0.12)	7(0.04)	-	83(0.49)	137(0.80)
계양구	12,365	205(1.66)	13(0.11)	14(0.11)	1(0.0001)	114(0.92)	63(0.51)
서 구	11,384	191(1.68)	12(0.11)	19(0.17)	6(0.0005)	70(0.61)	84(0.74)
강화군	1,847	38(2.06)	-	21(1.14)	-	7(0.38)	10(0.54)
옹진군	146	2(1.37)	-	-	-	-	2(1.37)
계	83,164	1,252(1.51)	92(0.11)	90(0.11)	8(0.0001)	462(0.56)	600(0.72)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의 비율은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높는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구와 강화군, 연수구임. 이들 지역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편인 중구나 남동구에 비해 학교 부적응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IV-2> 2011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중구	3,725	85(2.28)	9(0.24)	15(0.40)	1(0.03)	18(0.48)	42(1.13)
동구	1,845	43(2.33)	3(0.16)	2(0.11)	-	34(1.84)	4(0.22)
남구	6,174	378(6.12)	8(0.13)	15(0.24)	21(0.34)	251(4.07)	83(1.34)
연수구	3,440	139(4.04)	5(0.15)	13(0.38)	2(0.06)	82(2.38)	37(1.08)
남동구	940	18(1.91)	-	7(0.74)	-	5(0.53)	6(0.64)
부평구	3,370	90(2.67)	2(0.06)	6(0.18)	-	40(1.19)	42(1.25)
계양구	950	13(1.37)	-	-	-	8(0.84)	5(0.53)
서구	1,909	77(4.03)	4(0.21)	24(1.26)	2(0.10)	29(1.52)	18(0.94)
강화군	289	15(5.19)	-	-	-	9(3.11)	6(2.08)
옹진군	-	-	-	-	-	-	-
총	22,642(100.0)	858(3.79)	31(0.14)	82(0.36)	26(0.11)	476(2.10)	243(1.07)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이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없는 반면에, 특기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있음.
- 특기를 우선으로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남동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남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발생하고 있음.

<표 IV-3> 2011년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질병	가사	부적응	기타
중구	606	10(1.65)	3(0.50)	-	-	7(1.16)
동구	-	-	-	-	-	-
남구	864	46(5.32)	-	16(1.85)	30(3.47)	-
연수구	-	-	-	-	-	-
남동구	901	10(1.11)	1(0.11)	-	-	9(1.00)
부평구	999	14(1.40)	1(0.10)	1(0.10)	-	12(1.20)
계양구	-	-	-	-	-	-
서구	-	-	-	-	-	-
강화군	-	-	-	-	-	-
옹진군	-	-	-	-	-	-
총	3,370(100.0)	80(2.37)	5(0.15)	17(0.50)	30(0.89)	28(0.83)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2) 사회적 문제

(1) 부동산 가격 격차에 영향

-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로서,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에 편승하여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사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하게 되고, 이 또한 학부모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의 거주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부동산 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는 인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인 연수구의 경우 가장 높은 평당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인 동구, 서구, 중구, 계양구 등의 지역은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IV-4> 인천시 아파트 구별 평당 매매가격 추이(2000년-2010년)

(단위 : 만원/평)

구분	인천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2000	276.6	271.0	258.9	280.2	260.9	292.0	256.2	324.2	223.7
2002	382.0	372.9	365.2	392.7	315.9	408.7	329.3	485.9	300.9
2004	439.3	403.5	408.1	466.6	391.9	473.2	399.6	550.7	427.2
2006	510.3	442.3	433.5	488.4	403.7	532.6	530.2	725.3	563.1
2008	726.4	670.2	629.3	699.3	596.6	750.9	691.0	1,016.6	750.8
2010	779.2	680.0	650.6	749.1	612.9	767.0	752.2	1,150.6	763.0

출처 : 기윤환(2010) p.43 자료 가공.

(2) 지역주민간 위화감 조성

- 거주지역에 따라 학생들 간에 우열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게 교육격차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학부모들의 선호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교육격차가 점점 경제격차를 심화시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2. 지역 간 교육격차의 발생 원인

1) 지역의 교육여건 차이

(1) 계층 격차

-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지역 간 계층격차 문제의 영향력을 지적할 수 있음.
-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들의 가정배경 요인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고 이는 서울시 교육격차 연구(김영철, 2003)에서도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계층격차는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고, 이러한 계층격차가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인천시 내 지역별 계층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인천시 지역별 가구월평균 소득

을 살펴보면, 학업성취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소득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고 학업성취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인 남구, 중구, 계양구가 소득수준도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IV-5> 2010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가구월평균소득

(단위: %)

구 분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전체	20.3	25.7	28.6	13.0	8.5	3.9
중구	24.0	23.0	31.7	10.7	7.3	3.3
동구	17.3	27.3	34.6	10.8	7.7	2.3
남구	24.3	23.8	27.2	13.5	8.4	2.8
연수구	13.7	20.8	26.4	15.0	15.0	9.1
남동구	11.7	24.8	35.2	14.8	8.6	4.9
부평구	17.3	25.3	28.0	16.0	8.4	5.0
계양구	18.0	30.7	29.3	13.1	6.5	2.4
서구	17.0	27.3	30.3	12.4	10.7	2.3
강화군	53.8	30.4	11.9	1.9	1.2	0.8
옹진군	37.2	25.5	18.2	11.7	5.1	2.1

출처 : 인천통계 2010년

- 소득수준 외에 계층격차를 알려주는 지표로 직업현황을 들 수 있는데, 인천시 지역별 직업현황을 살펴보아도 소득수준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전문가/관리직의 경우 학업성취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인 연수구와 부평구가 높고,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인 중구와 동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수준과 직업현황을 종합하여 계층격차가 학업성취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함.

<표 IV-6> 2010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직업현황

(단위: %)

구 분	전문가/ 관리직	사무 종사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 타 (군인포함)	주 부	학 생	무 직
전체	10.6	12.5	14.0	2.7	12.7	26.2	10.9	10.4
중구	8.1	10.0	22.2	3.6	13.9	22.5	9.5	10.3
동구	7.2	16.4	15.4	0.3	16.8	20.0	11.5	12.5
남구	10.5	10.8	13.7	0.1	16.1	28.4	11.9	8.6
연수구	14.2	13.1	11.8	0.1	7.8	28.2	12.3	12.5
남동구	9.8	15.0	13.8	0.3	13.8	26.5	12.6	8.3
부평구	12.3	12.3	15.0	0.0	10.4	28.7	12.8	8.3
계양구	12.2	15.2	15.0	0.8	12.3	22.3	12.5	9.7
서구	11.5	14.0	12.8	0.8	13.9	27.2	9.4	10.6
강화군	2.8	3.9	8.2	27.3	4.5	31.0	2.2	20.0
옹진군	9.8	5.5	11.5	19.1	20.9	19.1	3.0	11.1

출처 : 인천통계 2010년

(2) 지역 간 교육경비 격차

-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또한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데(김영철, 2003), 2011년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인 군·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간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학력수준이 높은 연수구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로 가장 높은 편인데 연수구의 학력수준 또한 높은 수준임.
- 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남동구의 경우 타 지역보다 매우 낮은 편인데, 강화군은 초·중학교 급에서, 남동구는 고등학교 급에서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감안해 볼 때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과 학력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음.
- 지역마다 교육경비 지출 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만으로 학력수준과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이를 통해 결국 학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교육경비 격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은 계층격차라고 할 수 있음.

<표 IV-7> 2011년 구별 교육경비 현황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중 지방세+세외수입	교육경비	구성비
중구	94,395,380	1,800,000	1.91
동구	39,420,319	400,000	1.01
남구	83,059,852	1,500,000	1.81
연수구	107,433,965	2,100,000	1.95
남동구	142,595,783	800,000	0.56
부평구	105,892,074	1,100,000	1.04
계양구	61,749,012	800,000	1.30
서구	144,080,056	2,000,000	1.39
강화군	47,027,484	1,800,000	3.83
옹진군	34,279,950	1,100,000	3.21
총	859,933,875	13,100,000	1.52

출처 : 각 구청 홈페이지 2011년 재정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예산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임.

(3) 지역 간 사교육환경 차이

-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시 내에서 비교적 사설학원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지역이며, 중구와 동구, 강화군이 타 지역에 비해 사설학원 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학생수 대비 학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가 높고, 중구와 동구, 서구는 타 지역에 비해 전체 학생수 대비 사설학원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학생수 대비 학원수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연수구와 남동구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 연수구의 경우 초·중·일반계고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남동구의 경우 일반계고교와 특성화고교의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사설학원 수도 적고 전체 학생수 대비 사설학원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중구와 동구, 서구 지역은 학업성취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임. 중구의 경우 중학교와 일반계고교 급에서는 부진한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서구의 경우 초등학교 급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저조하며 기초학력미달의 비율도 높은 편임.

- 이를 토대로 볼 때, 사교육환경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사교육 환경에 대한 의존도는 계층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계층배경과 사교육환경 그리고 학업성취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됨.

<표 IV-8>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사교육환경

(단위: 명, 개, %)

구 분	전체학생수(명)	학원수(개)	학생수 대비 학원수(%)
중구	19,448	117	0.60
동구	11,239	90	0.80
남구	48,587	652	1.34
연수구	46,951	722	1.54
남동구	66,253	948	1.43
부평구	76,721	1,282	1.67
계양구	51,041	648	1.27
서구	63,040	769	1.22
강화군	6,798	87	1.28
옹진군	1,163	5	0.43
계/평균	391,241	5,320	1.16

출처 : 학생수는 인천교육통계 2011년

학원수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11년 조사 자료. 평생교육 관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지원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를 합한 통계자료임.

2) 학교의 여건 차이

- 학교의 여건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여기서는 교원 경력별 분포의 격차가 교육격차와 관계있는지를 살펴봄.
- 먼저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5년 미만의 적은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동구와 남구로 나타났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연수구와 부평구로 나타났음.

<표 IV-9> 2011년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 35년 미만	35년 이상
중구	350(100)	54(15.4)	186(53.1)	67(19.1)	30(8.6)	13(3.71)
동구	283(100)	88(31.1)	122(43.1)	42(14.8)	18(6.4)	13(4.6)
남구	1,120(100)	200(17.9)	528(47.1)	224(20.0)	104(9.3)	64(5.7)
연수구	1,006(100)	101(10.0)	299(29.7)	322(32.0)	195(19.4)	89(8.8)
남동구	1,698(100)	300(17.7)	664(39.1)	387(22.8)	220(13.0)	127(7.5)
부평구	1,867(100)	194(10.4)	700(37.5)	572(30.6)	281(15.1)	120(6.4)
계양구	1,275(100)	167(13.1)	609(47.8)	306(24.0)	131(10.3)	62(4.9)
서구	1,689(100)	260(15.4)	863(51.1)	359(21.3)	149(8.8)	58(3.4)
강화군	278(100)	21(7.6)	61(21.9)	126(45.3)	42(15.1)	28(10.1)
옹진군	83(100)	2(2.4)	27(32.5)	42(50.6)	10(12.0)	2(2.4)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표 IV-10> 2011년도 인천광역시 중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 35년 미만	35년 이상
중구	236(100)	51(21.6)	72(30.5)	64(27.1)	45(19.1)	4(1.7)
동구	136(100)	23(16.9)	43(31.6)	41(30.1)	28(20.6)	1(0.7)
남구	562(100)	153(27.2)	188(33.5)	138(24.6)	77(13.7)	6(1.1)
연수구	658(100)	94(14.3)	197(29.9)	246(37.4)	115(17.5)	6(0.9)
남동구	959(100)	152(15.8)	321(33.5)	306(31.9)	164(17.1)	16(1.7)
부평구	1,065(100)	90(8.5)	296(27.8)	454(42.6)	209(19.6)	16(1.5)
계양구	759(100)	103(13.6)	308(40.6)	246(32.4)	93(12.3)	9(1.2)
서구	953(100)	241(25.3)	381(40.0)	213(22.4)	112(11.8)	6(0.6)
강화군	146(100)	16(11.0)	26(17.8)	65(44.5)	35(24.0)	4(2.7)
옹진군	48(100)	1(2.1)	3(6.3)	23(47.9)	21(43.8)	0(0.0)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중학교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남구와 서구이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연수구와 부평구로 나타남.
- 일반계 고교의 경우 5년 미만의 교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계양구와 서구이

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연수구와 동구, 강화군으로 나타남.

<표 IV-1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 35년 미만	35년 이상
중구	330(100)	49(14.8)	124(37.6)	98(29.7)	53(16.1)	6(1.8)
동구	127(100)	15(11.8)	23(18.1)	42(33.1)	47(37.0)	0(0.0)
남구	622(100)	79(12.7)	266(42.8)	181(29.1)	86(13.8)	10(1.6)
연수구	637(100)	72(11.3)	228(35.8)	202(31.7)	124(19.5)	11(1.7)
남동구	910(100)	135(14.8)	349(38.4)	262(28.8)	154(16.9)	10(1.1)
부평구	1,160(100)	184(15.9)	446(38.4)	306(26.4)	206(17.8)	18(1.6)
계양구	818(100)	131(16.0)	381(46.6)	182(22.2)	118(14.4)	6(0.7)
서구	701(100)	147(21.0)	285(40.7)	172(24.5)	92(13.1)	5(0.7)
강화군	150(100)	21(14.0)	32(21.3)	59(39.3)	37(24.7)	1(0.7)
옹진군	53(100)	3(5.7)	5(9.4)	20(37.7)	25(47.2)	0(0.0)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표 IV-12>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행정구역별 교사경력 분포

(단위: 명, %)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 35년 미만	35년 이상
중구	317(100)	42(13.2)	103(32.5)	75(23.7)	90(28.4)	7(2.2)
동구	133(100)	11(8.3)	39(29.3)	40(30.1)	38(28.6)	5(3.8)
남구	525(100)	80(15.2)	156(29.7)	136(25.9)	140(26.7)	13(2.5)
연수구	291(100)	63(21.6)	88(30.2)	76(26.1)	56(19.2)	8(2.7)
남동구	77(100)	12(15.6)	8(10.4)	32(41.6)	24(31.2)	1(1.3)
부평구	263(100)	32(12.2)	48(18.3)	104(39.5)	74(28.1)	5(1.9)
계양구	75(100)	8(10.7)	21(28.0)	22(29.3)	23(30.7)	1(1.3)
서구	159(100)	27(17.0)	46(28.9)	54(34.0)	31(19.5)	1(0.6)
강화군	35(100)	5(14.3)	10(28.6)	15(42.9)	4(11.4)	1(2.9)
옹진군	-	-	0(0.0)	0(0.0)	0(0.0)	0(0.0)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특성화고교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연수구와 서구이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남동

구,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타남.

- 초·중·일반계고교의 경우 비교적 많은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 연수구는 학업성취 수준 또한 높는데 이를 통해 다경력 교사들이 연수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음. 연수구는 특성화고교 급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는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비교적 적은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구와 남구, 중학교의 경우 남구와 서구, 일반계 고교의 경우 계양구와 서구, 특성화 고교의 경우 연수구와 서구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서 인천시 내 경력교사들에게 비선호지역임을 알 수 있음.

3) 학생 이동 차이

- 학생들의 전입과 전출에 따른 이동이 지역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전입이 많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전출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함.
- 이에 인천시 지역 간 학생 이동 양상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출이 더 많고,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은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로 나타남.

<표 IV-13> 2011년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출			전 입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총계	14,500	8,977	5,523	14,059	8,481	5,578
중구	505	315	190	489	265	224
동구	397	307	90	375	295	80
남구	1,643	1,159	484	1,457	1,039	418
연수구	1,775	1,362	413	2,281	1,063	1,218
남동구	2,210	1,392	818	2,418	1,549	869
부평구	2,861	1,561	1,300	2,143	1,278	865
계양구	1,998	1,163	835	1,644	952	692
서구	2,749	1,535	1,214	2,918	1,836	1,082
강화군	247	133	114	236	154	82
옹진군	115	50	65	98	50	48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중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조금 더 많은데, 중구,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용진군 등이 전출보다 전입이 더 높게 나타남. 연수구의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전입이 높게 나타남.

<표 IV-14> 2011년도 인천광역시 중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출			전 입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총계	3,361	1,569	1,792	3,537	1,574	1,963
중구	173	87	86	222	104	118
동구	65	38	27	72	51	21
남구	312	182	130	299	157	142
연수구	387	227	160	624	257	367
남동구	506	206	300	716	340	376
부평구	690	314	376	514	200	314
계양구	492	228	264	385	148	237
서구	656	258	398	590	262	328
강화군	62	21	41	89	39	50
용진군	18	8	10	26	16	10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표 IV-15>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출			전 입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총계	1,299	572	727	941	370	571
중구	75	30	45	46	10	36
동구	17	8	9	9	5	4
남구	89	26	63	94	37	57
연수구	137	64	73	122	52	70
남동구	227	106	121	141	57	84
부평구	286	116	170	171	58	113
계양구	198	91	107	128	58	70
서구	223	108	115	201	79	122
강화군	41	19	22	25	11	14
용진군	6	4	2	4	3	1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일반계 고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높는데, 남구만이 유일하게 전입이 전출보다 조금 많음.
- 특목고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만, 특성화고교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

<표 IV-16>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출			전 입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총계	64	49	15	25	19	6
중구	11	11	-	-	-	-
남구	17	12	5	5	4	1
남동구	14	14	-	8	6	2
부평구	22	12	10	12	9	3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입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편인 연수구로의 전입보다 타 지역으로의 전입이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IV-17> 2011년도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 출			전 입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총계	165	36	129	244	152	92
중구	17	3	14	21	9	12
동구	10	2	8	28	22	6
남구	59	8	51	78	46	32
연수구	23	7	16	25	8	17
남동구	6	1	5	16	11	5
부평구	26	9	17	33	25	8
계양구	3	1	2	8	7	1
서구	17	2	15	28	17	11
강화군	4	3	1	7	7	-
옹진군	-	-	-	-	-	-

출처 : 인천교육통계 2011년

- 초등학교의 경우 전 지역에서 도내로의 전출이 도외로의 전출보다 많지만, 중학교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도외로의 전출이 더 많아지는 양상을 보임.
- 전입이 많은 지역인 연수구, 남동구, 남구 등은 학업성취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연수구의 경우 타 지역보다 전입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타 지역보다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학업성취 수준 또한 초·중·일반계고교급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이동이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V.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1.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방향

1) 지역 간 부의 격차 해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토대로 살펴본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 간 계층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파급력이 큰 정책 방향은 지역 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함.

2) 교육여건의 균등화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려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취약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균형적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자치군·구별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의 질적 수준 또한 지역 간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교육문화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보상적 교육정책 추진

- 계층격차가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취약지역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교육 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 위 교육격차 해소정책 방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적용가능 대상 학교급과 적용 고려가능 지역, 그리고 실현 가능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단기방안은 좀더 이른 시기에 실현가능한 방안이고, 중·장기 방안은 긴 안목을 가

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방안임.

<표 V-1>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시기별 분류

구분	방안	대상	지역	단기	중·장기
지역여건 균형정책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	-		○
	지역 간 교육문화시설 균형 배치	-	-		○
교육복지 정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	-	○	
	학교책임지도제 실시	초·중	서구, 계양구, 동구, 용진군,	○	
	교육복지정책 총괄관리 체계 구축	-	-		○
교육취약 지역지원 정책	‘리더쉽중점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	서구, 계양구 동구, 용진군, 중구, 강화군	○	
	원어민 교사 집중 배치 지원	초·중	동구, 중구, 서구, 용진군, 계양구	○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설치 지원	고	동구, 중구, 계양구		○
교육정책	지역 간 교원 평준화	-	-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실시	초·중·고	서구, 동구, 강화군, 연수구	○	
행·재정 지원정책	교육경비 보조금의 일정 비율 재원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	-	-		○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	-	-	○	

1) 지역여건 균형정책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내에서 원도심권과 신도심권 간의 경제격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교육격차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도심권과 신도심권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함.
- 균형적인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함으로써 계층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학생이동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교육격차 문

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

(2) 지역 간 교육문화시설 균형 배치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관련 시설, 각종 청소년시설 등이 지역 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상적 차원에서 취약지역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추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문화 시설 이용 바우처 발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 지역 간 교육격차에는 지역 간 계층격차와 경제격차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부의 격차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우선지역이 설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의 방향과 범위, 인력제공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및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함.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성 및 진로진학 상담,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교급 별로 차등 강화·지원되어야 하며,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학교책임지도제 실시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가정에서의 돌봄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지역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취약지역의 경우 사교육환경에 의존하기도 어려우므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방식의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이루어내는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함.

- 방과후담임지도제 : 학교책임지도제라고 하여 한 담임교사가 방과 이후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방과후담임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방과후담임은 학습상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및 상담, 진로진학 안내 및 상담, 가정 및 교우 관계 상담 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확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취약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자유수강권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지역 학생들의 학습자산이 다양화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육재능기부 활성화 : 방과후학교의 다양화를 위하여 교육재능기부 운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히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방과후학교를 운영함.

(3) 교육복지정책 총괄관리 체계 구축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관 부서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중복되거나 편향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기관(가칭 ‘인천시 교육복지정책 지원과’)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지원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에서도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중복성을 피하고 고른 혜택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3) 교육취약지역 지원 정책

(1) ‘리더쉽중점학교’ 운영 지원

- 취약지역일수록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나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진로진학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취약지역에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리더쉽중점학교'를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특정 단위학교가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은 외부 업체를 공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얻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리더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며,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진학을 고민해 보도록 운영하여 학습동기와 의욕을 제고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주도록 함.

(2) 원어민 교사 집중 배치 지원

-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과가 도입되고 있는데 영어교육의 경우 계층격차에 따른 학업성취격차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므로 취약지역의 경우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교육취약지역의 경우 사교육환경 의존도가 낮으므로 영어교육을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원어민 교사를 집중 배치하여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의 영어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함.

(3)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설치 지원

- 2011년 기준 마이스터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인천시에 1개교씩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타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음. 일반 특성화고교와 달리 특목고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일반 특성화고교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율형공립고의 경우도 일반계고교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두 학교 유형 모두 특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이므로, 교육취약지역에 이러한 학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4) 교육정책

(1) 지역 간 교원 평준화

- 교원의 경력 분포 조사 결과 지역 간 교원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지역 간 교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책(특별 수당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또한, 이와 더불어 취약지역의 학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약지역의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 다경력 교원들이 취약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실시

-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시행하여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자치군·구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초등학교 급에서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은 서구와 중학교와 일반계고교 급에서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동구, 특성화고교 급에서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연수구에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실시하여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행·재정 지원정책

(1) 교육경비 보조금의 일정 비율 재원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

- 인천시는 10개의 자치구군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으나 자치군·구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편차가 크고, 지원 범위가 다름. 지원 범위는 자치군·구의 실정에 따라 취약 부분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 예산의 불균형 문제는 지역주민의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 보아야 함.
- 교육경비의 불균형이 교육격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군·구가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자치군·구별 교육여건 격차와 학업성취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군·구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

-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육지원청 단위와 해당 지역 자치구들과 함께 협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자치구 단위로 관내 학교장들도 참여하는 협의회로 개최·운영하여 자치군·구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학교장들이 협력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군·구 단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관내 학교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학업성취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차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예컨대, 초등학교 급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서구와 계양구는 서구와 계양구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중학교 급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옹진군과 동구는 관내 중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고, 일반계고와 특성화고교 급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와 연수구는 이에 적절한 학업성취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과 활성화가 필요함.
- 중구의 경우 초등학교 급에 비해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급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강화군의 경우 초·중학교 급에 비해 고교 급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부평구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학업성취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학생이동의 효과를 고려해 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표 V-1>에서 제시한 방안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참고 문헌

-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4-48.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 : 인구 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청소년연구**. 18권 2호(pp. 315-344).
- 고형일 외(2005).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수탁연구 CR 2005-56. 한국교육개발원.
- 권균 외(1973). **학교교육의 전국적 평가연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김경근(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권 3호(pp. 1-23).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권1호(pp. 21-40).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권3호(pp. 1-27).
- 김병성(2003).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 의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 2003년 5-6월호.
- 김양분 외(2009). **주요 교육정책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현안연구 OR 2009-09.
- 김영철(2003).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8.
- 기윤환(2010). 인천시 아파트가격의 지역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7-2.
- 박종필 외(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변수용·김경근(2006). 한국사회에서의 학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권4호(pp. 1-27).
- 서지영(2010). 대구 군·구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성열관 외(2005).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
- 양정호(2006). 학업성취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 **제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pp. 3-20) 한국교육개발원.
- 오성배(2004).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지역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 31권 2호(pp. 169-192).
- 이성수 외(1962). **고등학교의 학교차에 관한 일 연구: 1962년도 조사**.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이성진 외(1980). **한국 초등학교 교육의 평가(I): 학력평가**.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정구향 외(2004). 200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김경희(2003).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지표
- 하봉운(2004).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경기논단 2004년 겨울호(pp. 61-9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방안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분석 결과 : 고등학교 1학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5·13이후 교육평가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 특성 분석: 200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결과 중심.
- 한정신(1980). 한국 청소년의 교육격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rnstein, B.(1973).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In *Class, codes and control Vol. 2*, London: Routledge.
- Bourdieu,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London: Tavistock.
- Brookover, W. et al.(1979). *School social system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s*, New York; J. F. Bergin Publishers, Inc..
- Colman, J.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iMaggio, P. & Mohr, J.(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0(pp. 1231-1261).
- Jencks, C.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Persell, C.(1977). *Education and inequ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ynthesis*. New York: The Free Press.
- Rutter, M. et al.(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ko/index.do>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인천교육통계 <http://www.ice.go.kr/openintro/static.asp>
- 인천통계 <http://www.incheon.go.kr/icweb/html/web1/001005002002001.html>
- 학교알리미서비스 <http://www.schoolinfo.go.kr/> 2010, 2011